

나노라

나라의 숨은 명소

VOL. 2

야마토코리야마시

奈良

の

良
い 所



① P4-5 : 금붕어가 헤엄치는 성하마을

金魚が泳ぐ城下町

② P6-7 : 금붕어 천국 코리아마에서 금붕어 건지기 체험

金魚天国郡山で金魚すくい体験

③ P8-9 : 헤엄치는 도감 · 코리아마 금붕어 자료관을 방문하다

泳ぐ図鑑・郡山金魚資料館を訪ねて

④ P10-11 : 마치야에서 쪽풀염색체험

町屋で藍染め体験





① 코리아마성터와 성하마을
郡山城跡と城下町



③ 금붕어건지기도장
고치쿠야
金魚すくい道場
こちくや



② 금붕어
자료관
金魚資料館



④ 하코모토관 곤야
(염색체험)
箱本館紺屋



금붕어가 헤엄치는 성하마을

야마토코리야마

하마드 무르드

「金魚が泳ぐ城下町」 大和郡山市



야마토코리야마시는 코리야마성을 중심으로 한 성하마을(城下町; 다이묘의 거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계획도시)입니다. 12 세기에 축성된 이래에 나라현의 주요 성하마을의 하나로서 발전해 왔습니다. 코리야마 성터에 피는 벚꽃은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일본의 벚꽃 명소 100 선에 선정될 정도입니다. 매년 4 월 첫째주에는 '오시로 마쓰리(성 축제)'가



성축제와 꽃구경

お城祭りとお花見

개최되어 성에 핀 벚꽃을 보러 많은 관람객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제가 야마토코리야마를 찾은 날은 마침 성 축제가 끝나고 야마토코리야마시 전체가 조용함을 되찾기 시작한 4 월 중순경 이었습니다. 긴테쓰 코리야마역에서 한걸음만 내딛어도 눈앞에 코리야마성의 성하마을이 펼쳐집니다. 화려함이나 변화함은 없지만, 역사가 숨쉬는 마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함과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야마토코리야마는 길목마다 거리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는 마을입니다. 오래된 마치야(町屋; 에도시대의 주상복합건물)가 쪽 늘어선 거리도 있고 작은 운하가 흐르고 있는 거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들은 아즈치·모모야마시대(16 세기)에 코리야마 성의 성주였던 도요토미 히데나가가 도입한 하코모토(箱本)제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히데나가는 상공업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동업자들을 한 거리에 모아놓고 거리마다 특허장을 부여하여 상공업을 보호하였습니다. 작은 운하는 염색상인들이 살았던 곤야정(염색상인들의 거리)에 남아있으며 옛날에는 염색 작업에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코모토 제도는 야마토코리야마에 있는 각 길목의 이름의 유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들어 오사카부 사카이시에서 온 상인들이 모여 살았던 거리는 사카이정, 두부 상인들이 살았던 거리는 두부정입니다. 재미있지요?

가는 길목마다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기 다른시대에 세워진 건물들이

혼재해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코리야마 성터는 물론, 낮은 2 층집이 특징적인 에도시대 (1603 년 ~ 1868 년)의 마치야(町屋)나 메이지 (1868 년~1912 년)·다이쇼(1912 년~1926 년)시대에 세워진 서양식 건물, 쇼와시대(1926 년~1989 년)의 자취를 남기는 상점가 등이 남아있어서 각각의 시대로의 시간여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리야마 성터에는 성루와 성문만이 남아있지만 천수각이 있었던 장소까지는 걸어갈 수 있어서 관광 중에 휴식을 취하기에도 제격인 장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나라에 있는 성곽이나 요새도시 등과 비교해가며 관광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일지도 모르겠네요.

제 출신지인 프랑스에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카르카손이라는 요새도시가 있습니다. 요새의 성벽 안에 마을이 형성된 카르카손과, 성을 중심으로 마을이 발전한 코리야마는



에도시대의방화탑 江戸時代の火の見やぐら



길을 헤맬 것만 같은
에도시대의 거리 모습

道が迷いやすい江戸らしい町並み

마을의 확장과정과 발전과정 등이 서로 다른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마의 성하마을의 역사적인 매력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만,

야마토코리아마의 매력은 역사뿐 만이 아닙니다. 메이지시대 이래 현재까지 금붕어의 양식이 성행한 야마토 코리아마에서는 양식을 위한 저수지 나 하천은 물론, 맨홀의 뚜껑부부이나 가게의 간판 등 마을의 대부분의 장소에 금붕어가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마을을 탐험해 보면 이런 곳까지 금붕어가 '헤엄'치고 있구나! 하는 발견을 여러분도

꼭 하게 될 것입니다. 호기심 왕성한 어린이에게는 역사적인 이야기보다는 금붕어 찾기가 더 재미있는 요소일지도 모르겠군요.

야마토코리아마에 오시면 다양한 시대의 모습을 남기고 있는 성하마을을 산책하면서 가족과 함께 금붕어 찾기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금붕어!(사진은 벤치)

金魚はこんなところにもいます !!! (写真はベンチ)

大和郡山は郡山城の城下町です。12世紀の築城以来、奈良県の主要な城下町のひとつとして発展してきました。郡山城跡に咲く桜は大変きれいで、日本の桜の名所 100選にも選ばれています。例年 4 月の第 1 週には「お城まつり」が催され、たくさんの花見客が訪れます。

わたしが大和郡山を訪れたのは、お城まつりが終わり、大和郡山が静けさを取り戻した 4 月中旬のことでした。近鉄郡山駅を一步出ると、そこにはもう、郡山城の城下町が広がります。華やかさにぎやかさはありませんが、歴史のある町の落ち着きと静けさが漂っていました。

大和郡山は、通りごとに町なみががらりと変わる町です。古い町屋が続く通りもありますし、小さな運河が走っている通りもあります。これは、安土・桃山時代(16世紀)の郡山城主、豊臣秀長の「箱本制度」に由来します。秀長は商工業保護の政策として、同業者を町ごとに集め、町々に特許状を与えて保護しました。「小さな運河」は染物商が住んでいた紺屋町(染め物商の町)にあったもので、染め物に使われていたそうです。この制度は大和郡山の町の名前の由来にもなっており、

住人の職業がそのまま町の名前になっています。たとえば、今の大阪府堺市の商人が住んでいた町は堺町、豆腐商の商人が住んでいた町は豆腐町です。おもしろいですね。

通りごとに町なみが変わると感じる理由(は)もう一つありました。それはいろいろな時代の建物が混在して残っていたことです。郡山城跡はもちろん、低い 2 階建てが特徴的な江戸時代の町屋や明治・大正時代に建てられた洋風建築、昭和時代の名残を残す商店街などがあり、日本のいろんな時代へタイムスリップ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なお、郡山城跡は近年、櫓や門を再建されており、天守台のあった場所なども歩くことができます。

あるいは、みなさんの国にある城や要塞都市の町なみと比較して観光するのも、面白いかもかもしれません。わたしの出身国フランスには世界遺産になっているカルカソンヌという要塞都市があります。要塞の壁の中で町が発展したとカルカソンヌと城を中心として町が発展した大和郡山では、町の広がり方や発展過程が異なるように思いました。

大和郡山の町の歴史的な魅力をお話ししてきましたが、大和郡山の町の魅力は歴史だけではありません。明治時代以来、現在でも金魚の養殖が盛んな大和郡山では、養殖池や小川はもちろのこと、マンホールのふたやお店の看板など、町中のいたるところで、金魚がたくさん“泳いで”います。町を探検してみれば、どなたどこに金魚が“泳いで”いるか、きっとたくさん発見が待っていることでしょう。好奇心旺盛なお子さんには歴史の話よりも金魚探しの方が面白いかもしれませんね。

さまざまな時代の面影を残す城下町を散歩しながら、家族で金魚探しを楽しんでみてください。



다이쇼시대에 세워진 서양식건물
大正時代に建てられた洋風建築



헤엄치는 도감 · 코리야마 금붕어 자료관을 방문하다

행운을 부르는 휴식의 공간

장민



泳ぐ図鑑・郡山金魚資料館を訪ねて-開運をもたらす癒やしの空間-

일본의 금붕어의 고향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나라현 야마토코리야마시의 금붕어 양식의 유래는 1724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리야마성의 성주 야나기사와 요시사토의 가신이었던 요코타 마타베가 중국의 금붕어를 관상용으로 도입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전해집니다. 현재 야마토 코리야마시의 양식업자는 약 70 곳 정도로, 연간 약 9000 마리의 금붕어를 사육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유수의 금붕어 산지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 그 인기의 비결 중의 하나이겠지만 좀 더 깊은 곳의 매력을 발견 하기 위해 금붕어의 산란시기인 4 월 중순에 맞추어 저희들은 코리야마 금붕어 자료관을 찾았습니다.

킨테쓰코리야마역에서 남쪽 방면으로 걸어가니 예스럽고 우아한 마치야 (에도시대의 주상복합건물)가 눈앞에 펼쳐지며 예로부터 변하지 않는 거리의 모습이 오래된 분위기를 풍깁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갑자기 풍경이 일변하여 금붕어를 양식하는 저수지들이 평야 일면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양식 저수지에 둘러싸인 좁은 길을 걸어가니 코리야마 금붕어 자료관의 하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료관은 금붕어 양식업을 경영하는 '야마토 금어원(錦魚園)'의 설립자 시마다 마사지 씨가 금붕어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자비로 설립했다고 합니다. 자료관의 전시실에는 금붕어에 관한 자료와 서적, 민예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시마다 마사지씨가 1950 년대 후반에 당시 국고가 없었던 중국에서 금붕어를 수입하여 번식에 노력한 경위에 관한 기사나 베이징의 천단부근의 금붕어 연못의 풍경을 도입한 기사는 야마토코리야마의 금붕어와 중국의 금붕어와의 깊은 관련성을 알려주는 매우 흥미 깊은 것이었습니다.

전시실 안에는 일본풍의 소박한 정원을 둘러싸고 커다란 수조가 여러개 놓여져있어 마치 '헤엄치는 도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작은 빨간 금붕어에서부터 진귀한 종류의 금붕어까지 수많은 종류의 금붕어를 실제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오란다)사자머리(和蘭獅子頭)(1)

는 1789 년 경에 중국에서 류큐(현재의 오키나와)를 거쳐 나가사키에 도래한 금붕어 품종입니다. 당시에는 쇠국 상태였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도래품을 '네덜란드(오란다) 물건'으로 불렀던 것에서부터 이러한 이름지어 졌습니다. 혹이 있는 특징적인 머리는 마치 투명한 구슬로 장식된 유럽의 귀족부인과 같은 머리모양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사쿠라아즈마니시키(桜東錦)(2)는 마치

선녀웃처럼 하늘거리는 지느러미와 흥백의 비늘모양이 특징적입니다. 흥백색의 비늘은 밝고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금붕어 토령

금붕어 토령(土鈴) : 토령은 흙으로 만든 방울을 말합니다. 민예품이나 장난감으로 이용되어 예로부터 액막이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야마토코리야마의 명품 도자기, 아카하다야키의 토령은 빨간 금붕어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소박한 초여름의 풍물시로 유명합니다. 아카하다야키 도자기 토령의 모티브인 금붕어는 에도시대에 코리야마를 다스렸던 야나기사와씨의 애완어이기도 합니다. 금붕어 토령은 신비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켜 행운을 불러오기도 하지요.



금붕어 니시키에

금붕어 니시키에(錦繪) : 니시키에는 여러 색을 인쇄한 목판화로 우키요에(浮世繪)의 한 종류입니다. 용모가 아름다운 금붕어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 고양이, 아이가 등장하면서 한편의 이야기와 같은 세계관이 전개됩니다.

하마니시키(浜錦)(3)는사쿠라아즈마니시키와 같은 홍백색이지만 비늘에 특징이 있는 금붕어입니다. 하마니시키의 비늘은 둥글게 솟아오른 석회질로 되어있어 펄(진주) 비늘로도 불립니다. 애교있는 표정과 더불어 매우 귀여운 금붕어입니다. 미야자키하야오 감독의 영화 '벼랑 위의 포뇨'를 연상케 하지요.



모든 금붕어는 아름다움을 추구한 교배노력의 결정체입니다. 금붕어 감상은 수조위에서 즐길 수도 옆에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 곳에 오시면 보다 아름답고 보다 우아한 금붕어를 추구하여 교배를 거듭해 온 역사와 금붕어의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금붕어 감상 이외에도 운치있는 일본풍 정원을 감상하며 즐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어의 금붕어(金魚 긴교)의 발음은 중국어의 금여(金余 긴요;둔이 남다)라는 발음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금붕어와 같은 빨간색은 '액운을 막는 색'이라고 여겨져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생각해보면 금붕어는 크게 '운수를 좋게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세련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금붕어를 키운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하고 예술적인 것인가요! 코리아마 금붕어 자료관은 금붕어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나 서적, 민예품은 물론 마치 예술품과 같은 아름다운 금붕어와 운치있는 일본정원을 한 공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멋진 장소입니다.

日本の金魚の故郷と言われる奈良県大和郡山は、その金魚養殖の歴史が古く、1724年まで遡ります。郡山城主柳沢吉里の家臣横田又兵衛が、中国金魚を観賞用に持ってきたのが始まりと伝えられています。現在、大和郡山市の養殖業者は、およそ 70 軒で、年間およそ 9000 万匹の金魚を育てている、日本有数の金魚の産地です。古い歴史を持つのがその人気の理由の一つですが、更なる奥深い魅力を見つけようと、金魚の産卵時期である 4 月中旬頃、私たちは郡山金魚資料館に訪れました。

近鉄郡山駅から、南の方へ歩いていくと、古めかしく優雅な家屋が見られ、昔から変わらない古い街並みの雰囲気が漂いますが、景色はすぐに一変し、金魚の養殖池が一面に広がります。養殖池に囲まれた細い道を歩いて行くと、郡山金魚資料館の白い看板が見えてきます。この資料館は、金魚の養殖業を営む「やまと錦魚園」の設立者、嶋田正治氏が、金魚の歴史や文化をより多くの人々に知ってもらえるように私財を投じて創設したそうです。公的な施設ではありませんが、入場料は無料です。資料館の展示室には、金魚に関する資料や書籍、民芸品が展示されています。嶋田正治氏が 1950 年代後半に、当時国交がなかった中国から金魚を輸入し繁殖に努力してきた経緯に関する記事や、北京の天壇付近の金魚池の風景を取り上げた記事は、大和郡山の金魚と中国の金魚の深いゆかりを感じさせ、大変興味深いものでした。

金魚土鈴 : 土鈴は土製の鈴です。民芸品やおもちゃとして親しまれ、古くは魔除けの道具だっ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大和郡山の定番であ

る赤膚焼の土鈴は、赤い金魚の形が模され、素朴な初夏の風物詩となっています。赤膚焼きの金魚土鈴は、江戸時代に郡山を治めた、柳沢氏の愛玩でもあったそうです。金魚土鈴は、神秘的な雰囲気が吹き込まれ、幸運をもたらすでしょう。

金魚錦絵 : 錦絵は多色刷りの木版画で、浮世絵の一種です。見目麗しい金魚の姿が鮮やかに描かれています。美しい女性、猫、子どもが登場し、物語のような世界観が展開されています。

展示室の側には、和風の素朴な庭園を囲むように大きな水槽がいくつも並べられ、まるで「泳ぐ図鑑」のように、おなじみの小さな赤い金魚から珍しい種類のものまで、たくさんの種類の金魚を実際に鑑賞することができます。

和蘭獅子頭(オランダシシガシラ) (1)

は 1789 年頃に中国から琉球を経て長崎に渡来した金魚です。当時、鎖国状態だった日本では外国からの渡来品を「オランダ物」と呼んでいたことから、そう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そうです。こぶのある特徴的な頭は、まるで透明感のある玉に装飾された、ヨーロッパの貴族婦人の髪型のようなです。**桜東錦(サクラアズマニシキ) (2)**

は、まるで天女の衣のように揺れるヒレと紅白のうろこの模様が特徴です。紅白の模様なので、明るくすっきりした印象を受けます。**浜錦(ハマニシキ) (3)** は、桜東錦と同じように紅白の色をしていますが、うろこに特徴のある金魚です。浜錦のうろこは丸く盛り上がった石灰質でできており、パール(真珠)うろこと呼ばれているそうです。愛嬌ある表情とあいまって、とても可愛い

金魚です。宮崎駿監督の映画「崖の上のポニョ」を連想してしまいました。

金魚はどれも美しさを追求した交配の努力の結晶です。金魚の鑑賞は金魚の姿を上から愛(め)ですることも、横から愛ですることもできます。より美しくより優雅な金魚を求めて、交配を重ねてきた歴史と金魚の美しさの奥深さが感じられることでしょう。また、金魚鑑賞のほか、趣のある和風庭園も楽しめます。ちなみに、「金魚(キンギョ)」の発音は中国語の「金余(キンヨ;お金が余る)」という発音に非常に類似しています。また、日本では金魚のような赤色は「厄除け」の色と考えられてきたそうです。これらのことを合わせて考えると、金魚は広く「縁起の良い存在」なのだと思います。より洗練された美しさを追求して、金魚を育てていくことはどれほど素晴らしく、芸術的なことでしょうか。郡山金魚資料館は、金魚にまつわる貴重な資料や書籍、民芸品はもちろん、まるで芸術品のような美しい金魚と趣のある日本の庭が同じ空間で感じられる場所でした。



코리아마 금붕어 자료관

우)639-1021
 나라현 아마토코리아마시 니키초 107
 전화 : 0743-52-3418
 긴테쓰코리아마역에서 도보 10 분



금붕어 건지기 도장의 풍경

金魚すくい道場の風景



'채의 한마디'는 선물로도 인기!

ポイの独り言はお土産として大人気!

금붕어를 잘 건져올리는 방법

金魚の上手なすくい方

① 채를 물에 넣을 때는 비스듬하게, 수중에서 움직일 때는 수평으로!(상하이동은 찢어지기 쉬움)

ポイを水中に入れる時は斜めに、水中で動かすときは水平に!(上下移動だと破れやすい)

② 금붕어를 건질 때에는 머리나 아랫배부터 금붕어를 수く時は頭またはお腹の下から.

③ 금붕어가 도망간다면 수중에서 쫓아가지 않을 것.

金魚が逃げたら水中で追いかけないこと.

④ 채를 바로 위로 들어올리지 말고 비스듬하게 포이는眞上にあげないで、斜めにあげること.

⑤ 금붕어 몸중에 어느부분이든지 채 위에 놓이게 할 것.

金魚の身体の一部が乗っているように心がける.

★ 무엇보다 **금붕어를 좋아할 것!**

なによりも**金魚すく이가大好きになること!**



**금붕어 천국 코리아마에서
금붕어 건지기 체험♪**

문윤정

金魚天国・郡山で金魚すくい体験



일본의 여름 마쓰리(전통

축제)에서는 유카타(전통의상)를 입고 금붕어 건지기를 즐기는 어린이이나 어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름 마쓰리와 금붕어 건지기는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여름의 풍물시이자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있어서는 한번쯤 체험해보고 싶은 재미있는 전통놀이지요. 오늘은 그 금붕어 건지기를 일년내내 체험할 수 있는 '금붕어 건지기 도장 - 고치쿠야'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금붕어 건지기 도장 - 고치쿠야'는 긴테쓰코리아마역에서 도보로 10 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곤야초(紺屋町)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치있는 운하를 따라 동쪽 방향으로 걸어가면 빨간 형집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금붕어가 장식되어 있는 건물이 눈에 띕니다. 이곳이 바로 '금붕어 건지기 도장 - 고치쿠야'입니다.

가게로 들어서면 금붕어를 모티브로한 수 많은 상품들이 방문자를 맞이합니다. 금붕어 건지기 도장 - 고치쿠야는 선물을 파는 가게도 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게 안에는 금붕어의 모양이 들어간 손수건이나 컵받침 등의 실용품에서 바람결에 종소리를 내는 풍경이나 모기향 받침, 양철로된 금붕어 장난감까지 금붕어와 관련된 온갖 상품들이 가게 안에 뽁뽁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붕어 건지기에 사용되는 종이를 붙인 등근 채에 사장님이 직접

메세지를 쓴 '채의 한마디'는 특히 인기있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의 유머넘치는 메세지를 찾아보는 것도 이곳을 찾는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또한 가게 안에는 '긴교 긴교 긴교(금붕어 금붕어 금붕어)~♪'라고 하는 즐거운 음악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금붕어로 가득찬 세계지요.

가게 안의 접수처에서 건지기용 종이채를 구입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드디어 금붕어 건지기 도장이 보입니다. 드디어 이곳에서 진짜 금붕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몇 개의 파란 수조 안에서 빨간색과 검정색의 귀여운 금붕어들이 활발하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수조에 따라 금붕어의 빠르기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금붕어 건지기의 난이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금붕어 건지기가 처음인 저는 난이도가 쉬운 수조에서부터 도전해 보았습니다. 사전에 *금붕어를 잘 건져 올리는 법*을 배웠지만 생각만큼 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번째 종이채는 이리저리 도망치는 금붕어를 쫓다가 금방 찢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리도 건져보지 못하고 돌아갈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2 번째 종이채를 구입하여 다시 도전해 보았습니다. 수중에서 종이채를 움직이면



금방 찢어져 버린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번에는 웬만하면 수중에서 움직이지 않고 금붕어가 종이채 위를 통과하기를 기다리는 작전을 택했습니다. 종이채 위를 금붕어가 통과하는 순간, 채의 가장자리를 이용해 비스듬히 건져 올려보니... 성공!! 1 마리의 귀여운 금붕어를 건졌습니다!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금붕어를 건져올려 두번째 종이채로 총 8 마리의 금붕어를 건질 수 있었습니다! 초보치고는 꽤 괜찮은 성적이지요? 처음 시도해 본 금붕어 건지기 체험은 무심결에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로 열중해 버렸습니다.

도장 안에는 문하생의 이름이 쓰여진 이름패가 초단부터 8 단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1 분간 몇마리의 금붕어를

건질 수 있는지에 따라 단위를 승격하는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금붕어 건지기의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지요. 문하생 중에서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이돌 이외에도 태국이나 홍콩 등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국땅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 또한 관광의 아주 좋은 기념이 되겠지요? 도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분들, 꼭 이 명예의 전당에 도전해 보십시오!

금붕어의 특산지로 유명한 야마토 코리아마시에서는 매년 8 월에 전국 금붕어건지기 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국에서 모인 금붕어 건지기의 달인들이 기록을 앞다투어 경쟁하며 회장은

관광객과 응원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매우 북적댁니다. 이 곳 또한 대회의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항상 금붕어 건지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수조를 설치한 것이 도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20 회 대회를 맞이하여 대회 출장예정자들도 도장을 찾아와 연습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기록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야마토코리아마에 오시면 '금붕어 건지기 도장 - 고치쿠야'에 들러 귀여운 금붕어와 교감하며 일본의 전통문화를 꼭 한번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日本の夏祭りでは浴衣姿で金魚すくいを楽しむ子供や大人をよく見かけます。お祭りと金魚すくいは日本人にとって夏の風物詩であり、日本を訪れる観光客にとっては一度は体験してみたい面白い遊びです。今日はその金魚すくいが年中体験できる「金魚すくい道場 こちくや」を訪れてみました。

「金魚すくい道場 こちくや」は近鉄郡山駅から徒歩 10 分ほどの場所に位置する紺屋町(こんやちよう)にあります。風情のある運河に沿って東の方へ歩いていくと、赤い布でできた巨大な金魚が飾ってある建物が見えてきます。そこが「金魚すくい道場 こちくや」です。

お店に入ると金魚をモチーフにしたたくさんのグッズが訪問者を迎えてくれます。「金魚すくい道場 こちくや」の受付は「おみやげ処」を兼ねています。店内には金魚の模様が入ったハンカチやバック、コースターなどの実用品から風鈴や蚊遣器、ブリキの金魚のおもちゃなど懐かしいものまで、金魚に関係するありとあらゆるおみやげが所狭しと並んでいました。ポイ(金魚すくい使用する紙製の網)に社長直筆のメッセージを書いた「ポイの独り言」は特に人気のあるおやげだそうです。社長のユーモアあふれる「ポイの独り言」を探しに行くのも訪れる楽しみの一つかもしれません。店内では「キンギョ、キンギョ〜♪」という楽し

い音楽も繰り返し流されています。まさに金魚だらけの世界です。

店内の受付でポイを購入し、奥へ進むといよいよ金魚すくい道場です。ここで本物の金魚たちに会うことができました。いくつもある青い水槽の中では、赤色や黒色のかわいい金魚が元気に泳いでいます。水槽によって金魚の速さや種類が違いますので、金魚すくいの難しさが変わるそうです。

金魚すくいが初めてだったわたしは易しい水槽で挑戦してみました。上手にすくう方法*を事前に教えてもらいましたが、中々思い通りにはいきません。1 枚目のポイは、あちらこちらに逃げる金魚を追いかけているうちにすぐに破れてしまいました。

1 匹もすくわずに帰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2 枚目のポイを買って再挑戦しました。水中でポイを動かすとすぐに破れてしまうことを学んだので、2 枚目のポイはあまり動かさずに金魚がポイの上を通るのを待つ作戦をとりました。ポイの上を金魚が通った瞬間、ふちを利用して斜めにすくいあげると・・・成功です! 1 匹のかわいい金魚をすくうことができました! この方法で次々と金魚をすくいあげ、2 枚目のポイでは、計 8 匹の金魚をすくうことができました! 初心者にしてはよくできたほうでしょうか? はじめての金魚すくいは、思わず時間を忘れてしまうほど熱中してしまうものでした。

道場には、門下生の名前が書かれた板が掲示されていました。段位は初段から 8 段まであります。1 分間にすくえる金魚の数で段位が昇格していく試験があるそうです。まさに金魚すくいの名誉の殿堂と呼べるような場所ですね。門下生の中には有名な芸能人やアイドルのほか、タイや香港から来た外国人観光客の方の名前もありました。異国の地で自分の名前を残すことはとてもいい記念になると思いますので、道場を訪れた際は、観光客の方もぜひ殿堂入りに挑戦してみてください。

金魚の特産地として有名な大和郡山市では、毎年 8 月に全国金魚すくい選手権大会が開催されています。全国から集まった金魚すくいの名人たちが記録を競い合い、会場は観光客や応援しに来た人々で大変にぎわいます。道場は大会を盛り上げるために、いつでも金魚すくいの練習ができるように水槽を設置したのがその始まりだそうです。今年で 20 回を迎える大会を控え、出場予定者の方も道場で練習に励んでいます。

大和郡山に来られるみなさんも「金魚すくい道場 こちくや」に立ち寄り、可愛い金魚と触れ合える日本の伝統文化をぜひ体感してみてください。

금붕어 건지기 도장 「고치쿠야」

나라현 야마토코리아마시 곤야초 23-1
TEL 0743-55-7770

마치야에서 쪽풀염색체험

제니퍼 김

町屋で藍染体験

야마토코리야마라고 하면 가장 먼저

금붕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금붕어 뿐만 아니라 코리야마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일본에 전해내려오는 쪽풀 염색(藍染)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킨테쓰코리야마에서 도보 10 분정도 동쪽으로 향하면 곤야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곤야(紺屋)란 염색상인을 뜻하는 말로, 옛날 염색상인들의 가게가 20 채 정도 늘어 서있었던 것에서 곤야초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곤야초의 중심에는 장인들이 염색에 이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작은 하천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쪽풀염색과 함께 야마토코리야마시의 심볼인 금붕어도 볼 수 있는 하코모토관 '곤야'를 방문하여 손수건 염색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하코모토관 '곤야'는 17 세기부터 쪽풀염색을 생업으로 삼았던 마치야(에도시대 주상복합건물)를 개장한 건물로, 금붕어 건지기 도장 '고치쿠야'(p8~p9)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금붕어를 차용한 디자인의 공예품이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안쪽에는 공방이 있습니다. 손수건과 같은 간단한 물건부터 가방이나 스톨같은 어려운 물건까지 다양한 종류의 쪽풀염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스태프인 아마노상으로부터 쪽풀염색의 역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쪽풀염색은 서민들에게 널리 이용된 염료로 옛날부터 보자기나 노렌(가게 출입구 쳐놓은 발)에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19 세기 이후 화학염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쪽풀염색의 원료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감소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쪽풀은 고급염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쪽풀이 가진 살균, 향균작용 등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쪽풀 염색이 재평가 받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은 후 본격적인 체험은 손수건의 무늬 디자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세상에 딱 한 장만 존재하는 손수건을 디자인해 갑니다. 돌이나 젓가락, 고무밴드, 필름 케이스 등 주변에 흔히 구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염색되지 않는 무늬 부분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완성된 모습에 구애되지 않기로 하고, 아이처럼 마음가는대로 도구를 사용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다음 과정은 손수건을 쪽풀염료에 적시는 작업입니다. 공방 밖에 준비되어 있는 앞치마와 고무장화, 고무장갑으로 갈아입고, 일단 손수건을 물에 담그고 물기를 꼭 짠 후 거대한 항아리 안에 있는 염료 액에 담그어



눌러주며 천천히 움직여 염색액을 적십니다.

Q: 가마안에 있는 액체는 무엇입니까?
쪽풀염색의 염료입니다. 쪽풀 잎과 석회, 술, 밀의 껍질 등을 섞어 만듭니다. 젓물을 더하면서 점차 발효시켜 2 주정도 후에 완성됩니다. 보존기간은 사용방법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2 개월~10 개월까지입니다. 쪽풀 염료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자주 체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손수건을 담근 물을 꼭 짜 주는 것도, 항아리 안에서 천천히 움직여 적셔주는 것도 살아있는 생물인 염료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공방에 있는 6 개의 항아리 주변에는 많은 시계가 놓여져있으니 염색을 할 때에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가면서 염색해 주세요.

손수건을 1 분간 담근 후 항아리에서 건지면 녹색을 띄고 있지만 산화에 의해 점점 푸른색으로 색이 변화해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꺼낸 손수건은 다시 한번 물에 씻어냅니다.

※ 좋아하는 색이 나올때까지 염료에 담그고 물에 씻어내는 순서를 반복합니다. 도중에 손수건을 감싼 몇개의 도구를 떼어내면 색의 진함을 조절하거나 하늘색 물방울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색으로 염색이 되었다면 공방 밖에 있는 식초 싱크 안에 3 분간 넣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로 씻어내고 다리미로 다려서 건조시키면 완성입니다!

캐나다의 초등학교에서는 'Tie-dye(홀치기 염색)'라고하는 천을 묶거나 감아서 염색하는 체험을 합니다만 일본의 쪽풀 염색과는 달리 밝고 화려한 색상을 많이 사용합니다. 체험 전에는 Tie-dye 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쪽풀 염색에 대한 이야기와 쪽풀 색의 안정된 아름다움을 접하고, 전통적인 염색법을 체험하면서,

어린시절 체험했던 놀이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전통적인 선물을 만들어 보는 것은 외국인에게 있어서도 일본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매력적이고 즐거운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하코모토관 '곤야'에서 염색체험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약정보에 대해서 :

<http://www.hakomoto.com/english/english.htm>

※체험은 예약우선이므로 전화예약을 하신 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大和郡山市といえば、まず金魚を思い浮かべる方が多いと思いますが、大和郡山では日本に古くから伝わる藍染に触れることもできます。近鉄郡山駅から徒歩で 10 分ほど東へ向かうと、紺屋町という町があります。「紺屋」は染め物商のことで、昔は染め物商のお店が 20 軒ほど並んでいたことから、紺屋町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そうです。紺屋町の中心には、職人たちが染め物に利用するために造った小川が今も残っています。

今回、藍と大和郡山市のシンボルである金魚を楽しめる箱本館「紺屋」にお邪魔して、ハンカチの藍染めを体験してきました。箱本館「紺屋」は 17 世紀から藍染めを生業(なりわい)としてきた町屋を改装した建物で、金魚すくい道場「こちくや」(p8~p9 参照)のすぐ近くにありま。建物の中に入ると、金魚を取り入れたデザインの工芸品や美術品が展示されていて、奥には工房があります。工房では、ハンカチなど簡単なものからカバンやストールなど難しいものまで様々なグッズの藍染めを体験できます。

はじめに、職人の天野さんから藍染めの歴史について簡単に説明していただきました。藍染めは広く庶民になじみのある染料として、昔から風呂敷やのれんに使われていたそうです。19 世紀以降、化学染料の技術が発展するにつれて、藍染めの染料の原材料を造る人が減少し、藍は高級染料になりましたが、最近では藍の持つ殺菌や消臭などの効果が知られるようになり、藍染めが再評価されているようです。

説明後の藍染め体験は、ハンカチの柄のデザインから始まりました。自分の想像力を頼り

に、世界に 1 枚だけのハンカチをデザインしていきます。石や割り箸、輪ゴム、フィルムケースなど身近にある道具を使って、染めない部分を造っていきます。わたしはあまり考えすぎず、こどものように思うまま道具を使ってデザインしました。

次のステップは、ハンカチを藍に浸す作業です。工房の外に用意されているエプロン、ゴム長靴、ゴム手袋を身につけて、一旦ハンカチを水に浸して絞った後、甕の中にある染料の液に押し込んでゆっくり動かしながら浸します。

Q: 甕にある液は何ですか？

藍染めの染料です。藍の葉や石灰、お酒、小麦の殻などが混ぜられています。灰汁を加えながら徐々に発酵させ、2 週間ぐらいでできあがります。保存期間は、使い方によって異なりますが、2 か月~10 か月です。藍の染料は生き物みたいなものなので、調子の善し悪しをこまめにチェックしています。

はじめにハンカチに浸した水をしっかり絞り、甕の中をゆっくり動かしながら浸すことも生き物である染料に負担をかけないためです。工房にある 6 つの甕の回りには時計がたくさんおいてありますので、染める時にしっかり時間を計って浸してください。

ハンカチを 1 分間浸したあとに甕から取り出すと緑色をしています、酸化によりだんだん青色へ色が変わっていくのが面白いポイントです。浸した後は、水洗いします。

※好みの濃さになるまで染料に浸す→水洗いする手順を繰り返します。途中でハンカチに挟んだ道具をいくつか取ることで濃淡の変化が出たり、水玉模様を描くことができたりします。

好みの濃さになったら、工房の外にある酢のシンクの中に 3 分間入れて、最後にもう一度きれいな水で洗って、アイロンで乾かせば完成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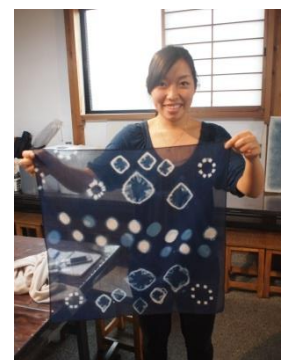
カナダの小学校では「タイダイ」という絞り染めの体験をしますが、日本の藍染と違って、明るい派手な色をたくさん使います。体験前は、タイダイに似たものを想像していましたが、藍染めに関するお話を聞いたり、藍の落ち着いた色や美しさに触れたり、伝統的な染め方の技法を体験して、子供の遊びとは全く異なる体験に感じられました。

自由な想像力で伝統的なお土産を自分の手で作ることは、外国人にとっても日本人にとっても魅力的でとても楽しい経験になると思います。ぜひ箱本館「紺屋」で挑戦してみてくださ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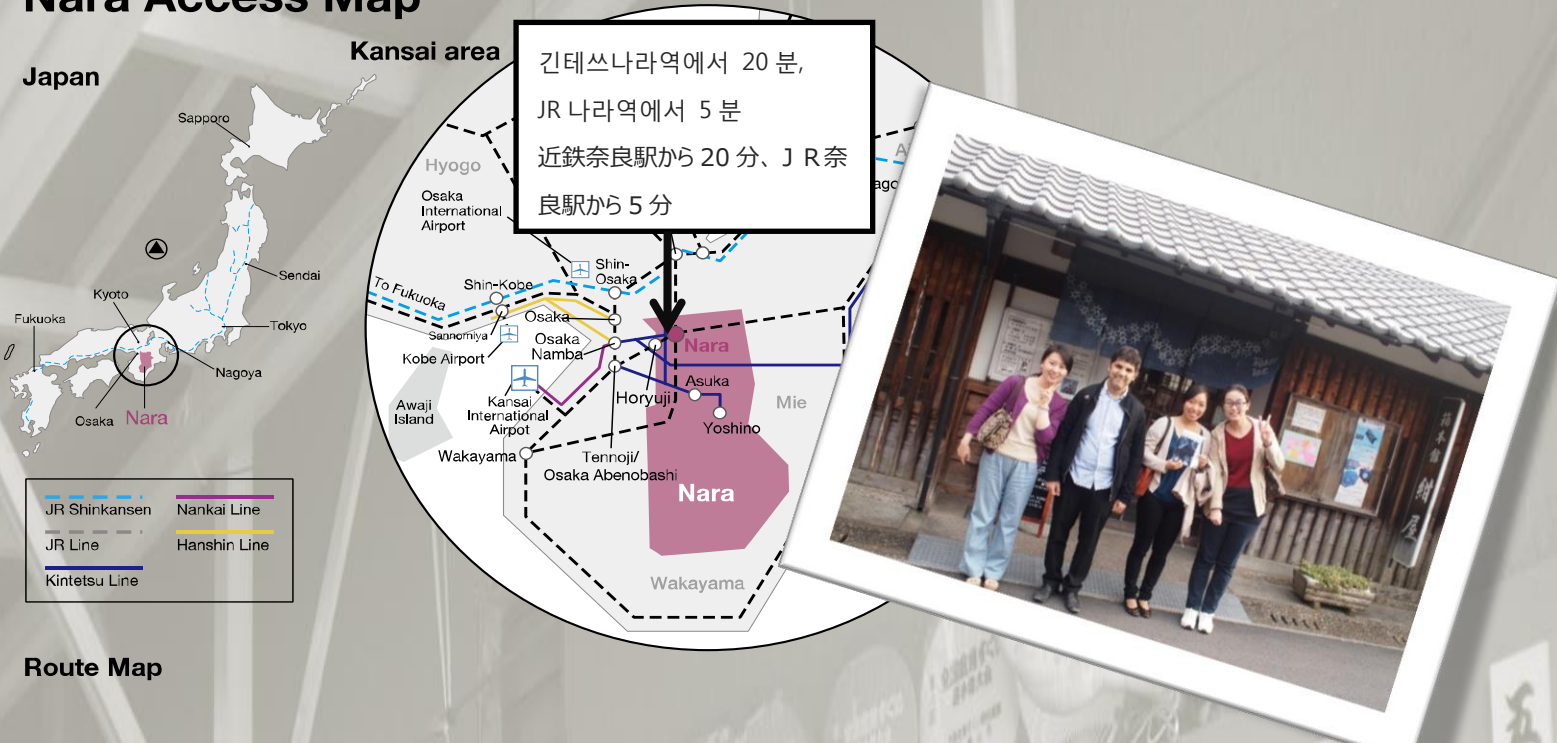
※予約情報について :

<http://www.hakomoto.com/taiken/index.htm>

※体験は予約優先ですので、電話予約してから行くことをお勧めします。



Nara Access Map



Route Map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나라현 국제과에 근무하고 있는 국제교류원입니다. 나라현과 해외 각국과의 교류를 진전시키는 가교가 되고자 매일 국제교류와 관광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노라’는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나라현의 매력을 외국인 여러분에게 소개하기위하여 나라현에서 발견한 매력이나 재미있는 것들에 대해 스스로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정보지입니다. 본 정보지가 나라현에 흥미를 느끼는 계기 또는 외국인이 느끼는 나라의 매력을 발굴하는 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금붕어가 헤엄치는 성하마을 야마토코리아마시를 취재하였습니다. 금붕어라는 신비로운 생물의 화려함과 역사적인 거리의 대비가 매우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취재에 협력해주신 ‘고치쿠야’, ‘금붕어 자료관’, ‘곤야’를 비롯한 야마토코리아마시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라현 국제교류원 일동 문 윤정, 제니퍼 김, 하마드 무르드, 장민

こんにちは。

私たちは奈良県国際課に勤務する国際交流員です。奈良県と海外の交流を深める架け橋となるべく、日々、国際交流・観光業務に従事しています。『奈の良』は、外国人の目線で見えた奈良県の魅力を外国の方に紹介するため、奈良県で見つけた魅力やおもしろいことについて自ら取材し、記事にしたものです。本誌が奈良県に興味を持つきっかけや外国人が感じる奈良の魅力を発掘する手がかりとなれば嬉しく思います。今回は金魚が泳ぐ城下町、大和郡山市を取材しました。金魚という神秘的な生き物の華やかさと、歴史的な町並みのコントラストがとても印象的でした。

最後に、今回の取材にあたり御協力いただいた「こちくや」と「金魚資料館」、「紺屋」をはじめ、大和郡山市の方々にお礼申し上げます。

ムンゴンジョン
奈良県国際交流員一同 文 閔 貞、キム ジェニファー、ハマドウ ムルードウ、張 敏

발행처 :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奈良県知事公室国際課) TEL : +81-(0)742-27-8477, E-Mail : iad-nara@mahoroba.ne.jp